

여성 스트레스 부추겨

‘여성신문’ 조사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사회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혼자 생각하고 참는’ 소극적인 형태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서울 거주 만18살 이상 성인 여성 5백94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1위 성폭행 등의 퇴폐적 사회문제, 2위 범죄 증가 및 난폭화, 3위 교통문제, 4위 부동산투기 및 과소비현상, 5위 과밀인구, 6위 쓰레기공해, 7위 자녀교육문제, 8위 식품공해, 9위 음공해, 10위 정치적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사회적 환경

으로부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를 맡았던 이화여대 박숙자 교수(사회학)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의외로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레스 증상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초조해진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두통을 느낀다 △열이 난다 △소화불량이 된다 △

피곤하고 기운이 쭉 빠진다 △우울하고 울고 싶어진다 △혼자 있고 싶어진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혼자 생각하고 참거나, 잠을 자고 폭 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음악감상·독서·편지쓰기 등 정서적으로 해소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여 해소한다 △운동·산책·여행 등 신체적으로 해소한다 △쇼핑을 한다 △증상에 따른 약을 먹는다 △자포자기하여 운다 △기도 등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정서지향적 대응책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은 “사회의 모순과 혼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여성임이 밝혀졌다”면서 “민생치안의 확립이 여성의 건강한 삶 확립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여성들도 스트레스를 준 상황에 직접 부딪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판] 1989년 4월 20일[목요일] [9]

수도권소식

청소년대상 이발소에 세제 혜택 서울시 법개정 건의 퇴폐 2회 적발땐 허가취소

서울시는 19일 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이용업소를 청소년 대상 업소와 성인 전용 업소로 구분하는 등 이용업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사부 등 관계부서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용업소를 청소년 대상 업소와 성인 전용 업소로 구분해 청소년 대상 업소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여자보조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들 업소들을 모두 모범업소로 지정해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또 성인용 업소는 허가제로 하며 시설기준을 면적 90㎡와 의자 10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영업시간은 자유화하며 여자보조원에 대해 연 2회의 성병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업소 여자보조원의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이용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이용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퇴폐영업행위를 하다 2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여자

보조원은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퇴폐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를 허가취소할 때 현재 6개월까지만 허가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였던 1단계 퇴폐업소 단속에 이어 20일부터는 불시기술 단속을 위주로 한 2단계 퇴폐업소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